

마한역사문화 복원·세계화 호남권 대선과제 건의

전남도·광주시·전북도 공동
26~28일 영산포 등 일원
고대해상왕국 마한문화 행사

전남도는 '마한문화권 발전과 마한역사문화 복원 및 세계화'를 광주, 전북도와 함께 광역 대선과제로 건의하기 위해 국립나주박물관과 공동으로 '동아시아 고대 해상왕국 마한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마한타고 남도가자'를 주제로 열리는 '동아시아 고대해상왕국 마한문화행사'는 26일부터 3일간 국립나주박물관과 영산포 등 도내 일원에서 펼쳐진다.

행사 첫날인 26일 사전행사인 '마한 영산강 뱃길 재현 및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개막 공식행사인 '대선 과제 공동건의 퍼포먼스'를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 '옴뎀남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마한 영산강 뱃길 재현 및 정상회담'에선 고대 해상왕국 마한의 찬란했던 영산강 문화를 재현하기 위해 마한 영산강길 자전거 대행진을 진행했다. 또 전남도와 곡성, 고흥, 진도를 포함한 14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 고대 영산강 뱃길 재현, 마한 발전 비전 발표 및 대선과제 협의를 위한 마한정상 회담을 개최했다.

국립나주박물관에서 열리는 개막행사는 대선과제 채택을 기원하는 마한문화행렬단, 도립국악단 마한 기확공연, 마한기예무단 공연 등 마한문화 발전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개막행사의 핵심인 '대선과제 공동건의 퍼포먼스'에서는 마한역사문화 복원 및 세계화를 위해 전남, 광주, 전북 3개 시·도와 참석자 전체가 함께 대선과제 건의 디지털 서명식을 진행한다.

공동건의 서명식은 마한사 복원을 위한 3개 시·도 초광역 협력의 시작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

행사 기간 (재)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마한사 복원 과제로 기획한 웹툰 '고대해상왕국 마한의 바닷길 이야기'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재현한 영산강 유역의 대형 옹골을 국립나주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27~28일에는 도내 일원에서 마한문화유산과 관광, 자연생태 등을 접목한 '마한역사 유적답사'를 하고, 나주 반남 고분군 일원에서 도내 청소년이

마한유적 유물 등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마한 상상미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 반남 고분군(국가사적 제513호)에 위치한 덕산리 3호분 발굴 현장을 일반인에게 최초 공개한다. 이 밖에도 전남도 14개 시·군, 광주시, 전북도 마한역사문화 홍보관을 운영하고, 방문객을 위한 마한역사홍보관 인증샷 이벤트도 열린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지난 6월부터 시행돼 마한사를 복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이번 행사는 마한사 복원의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 광주, 전북이 초광역 협력으로 마한사 복원 정비의 실행력을 확보하겠

다"며 "마한역사 문화권의 복원 및 세계화를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하도록 해 국민의 관심을 끌어내고 역사문화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나주박물관은 특별전 '금보다 귀한 옥'을 오는 30일부터 2022년 2월 6일까지 개최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마한사 복원을 위해 현 정부의 대통령 지역공약 확정 후 전남도 차원의 기본계획을 2017년 수립하고, 2018년 조례를 제정한 뒤 2020년 11월 마한문화 발전 비전을 선포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에서 수립 중인 5개년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6일 국립나주박물관 일원에서 개막한 '마한문화행사'에서 마한문화행렬단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부터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연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채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는 전남도와 광주시를 비롯해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전력공사가 주최하고, 전남일자리종합센터,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주관한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 극복!! 일자리 JOB!! 청년희망 잡GO!'를 슬로건으로, 광주·전남 150개 기업이 참여하며, 채용 인원 50명을 목표로 추진한다. 참여를 바라는 구직자는 잡코리아 누리집(myjob.jobkorea.co.kr)에서 참여기업 현황을 확인한 후 구직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 일자리종합센터(061-287-1142)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전남 합동 일자리 박람회는 지난 2018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일자리 유관기관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107개사, 1276명이 참여해 33개사, 39명을 채용하는 실적을 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에너지밸리 첫 전력분야 종합시험연구기관 가동

나주혁신산단서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 개원식

'한국전기설비시험연구원' 개원식이 26일 나주 혁신산단에서 열렸다. 개원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신정훈 국회의원, 강인규 나주시장,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구자균 한국전기산업진흥회장,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명성호 한국전기연구원장,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시험연구원은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평가건축 사업' 유치를 통해 설립했다. 나주 에너지밸리에 최초로 들어서는 전력설비 분야 종합시험연구기관이다. 앞으로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부터 시험평가, 인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구상이다.

국내 최대 전기산업 제조업 사업자 단체 '한국전기산업진흥회'가 총괄 운영을 맡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이 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

참여한다. 시험연구원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204억원을 들여 7960㎡ 부지에 3662㎡ 면적의 2개 시험동과 배전급 전력설비의 절연 특성, 전압 한도, 열화·진동·열수 환경 특성, 전자파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장비 23종을 구축했다.

전남에 특화된 재생에너지 전용선로(70kV)를 시험평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다. 특히 기업의 수요가 많고 시험 대기로 인해 4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되는 '복합가속열화' 시험 적체 해소를 위해 다양한 크기의 제품을 동시에 시험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 챔버 2대를 도입했다.

전자파시험동은 국내 배전급 시험소 중 가장 큰 규모로 설계했다. 다른 시도 시험소는 전자파 신뢰성·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거리가 3~5m에 불과하나 10m까지 가능하다. 전자파는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증 항목이다. 향후 전 기자동차, e-모빌리티, 드론 관련 기업들도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시험연구원 후속과제로, 디지털 기반 가상 모의시험 시스템을 구축해 신제품 개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전력기자재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사업'을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와 저탄소 경제로 진입에 따라 전력설비 분야도 탄소 저감,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국제표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한국에너지공단, 강소연구개발특구, 에너지신기술연구소 등 에너지밸리 혁신인프라와 연계해 차세대 친환경·고효율 전력설비 기술개발 및 시장 선점을 목표로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밸리 입주기업을 위한 시험비용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에는 납품하는 자재검수도 시험연구원에서 받도록 한전과 협의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고흥 풍류·보성 영천마을
유기농 생태마을로 조성

전남도, 농촌융합성공모델로

전남도는 고흥 풍류마을과 보성 영천마을을 '2022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 총 10억원 지원해 전남을 대표하는 유기농 농촌융합산업의 성공모델로 조성하기로 했다.

고흥 두원면 풍류마을과 보성 화천면 영천마을은 2022년 사업을 통해 유기농업을 확대하고, 유기농 융복합산업화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체험 관련 마을 공동시설 및 장비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풍류마을은 35ha가 넘는 유기농 벼 재배단지가 집적화된 풍류단지 중심으로 공동 육묘장, 광역방제기 등 공동 생산시설을 확대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규모화를 통한 생산 효율성 증진을 꾀할 계획이다.

영천마을은 2018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 계단식 차밭과 생물 다양성 등의 보존가치를 인정받은 마을이다. 2022년 마을 공동 녹차 가공 및 체험·판매시설, 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8년부터 매년 청명차 만들기 행사, 소박한 차 꽃축제 등 마을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마을 인근에 영천저수지, 판소리 성지 등 볼거리가 많아 유기농 녹차를 소재로 마을을 친환경 농촌문화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대외협력수석보좌관

김중환 전 총리 비서관 임명

광주시는 "대외협력수석보좌관(3급)으로 김중환(52·사진) 전 국무총리실 정부기획비서관을 27일자로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임 김 대외협력수석보좌관은 광주 출신으로 조선대학교 회계학과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국회부의장 비서관(3급 상당)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실 정부기획비서관(2급 상당)을 맡기도 했다.

대외협력수석보좌관은 서울에 상주하며 광주시와 국회·중앙부처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대외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기관과 소통하면서 시장을 보좌한다.

광주시는 신임 김 대외협력수석보좌관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을 지원할 '광주인공지능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개스파' 세제혜택 확대 관련법 개정,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 근거법 마련, 광주시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고자기장 연구소 구축, 광주송정역사 증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문화시설 집적화 예산 확보 등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 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입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